

나주, 신규시책 발굴로 호남 중심 선다

저출산 극복 관련 등 체감시책 33건 눈길 강인규 시장 "발표 시책에 행정 역량 집중"

나주시는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실·단·과·소 간부 및 팀장급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의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정목표와 정부 국정과제, 4차 산업의 혁신성장동력, 혁신도시 시증2,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한 대비 등 민선 7기 역점과제를 수행할 시책을 발굴했고, 지역 현안에 대응한 시책 또한 다수 포함됐다.

보고회에서는 내년에 시행할 신규시책 62건과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시책 33건을 보고되었는데 눈에 띄는 시책을 보면, 신규시책으로는 민선 7기 공약과 연관된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아동의 육아문제를 도와주는 △도담도담 공동육아나눔터, 4차 산업 과제인 시 시설물에 태양광발전용 활용하는 △나주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에게 맛 집이나 방문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나주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그리고,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빗가람호수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쿨(COOL) 팍(PARK) 조성 사업, 고령화에 대비한 치매환자의 고립을 방지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조성, 혁신도시 이전기관 구내식당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계획인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사업 등이 보고됐다.

또한, 내년으로 4년차로 접어든 시민중심 체감행정 시책을 보면, 저출산 극복과 관련해 아빠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위한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추억여행 '아자캠프', 언제 어디서나 시정에 대한 정보를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읍면동별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역사와 자랑거리를 전시하는 △우리 동네 마을박물관 갖기 사업, 어린이들의 맞춤형 독서활동과 자



나주시가 최근 청사 대회의실에서 호남의 중심 나주 실현을 위해 2019년도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육화기제에 대비해 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차근 차근 진로여행', 도심 속에 옥상텃밭정원들을 조성해 폭염기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사업 등 내년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시책 또한 다수 발굴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강인규 나주시장은 "올해 2018년은 전라도 정명 천년의 해이자 민선 7기가 시작되는 해로써 우리 나주시에 있어 특별한 해라고 생각한다"며 "발

표된 시책을 씨앗으로 민선 7기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리 나주가 다시 호남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유치는 인구증가, 예산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므로 최근 후보지로 지정된 국가산단을 조기에 착공해 빗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완성하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주=김동철 기자 dongkk@

영광,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서 큰 성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총 11개 선정·국비 87억 확보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공모사업에 국비 87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무령지구 농촌형 고령친화적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갑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 만들기 7개 사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이는 영광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래 유례없는 공모 성과를 달성했고, 전남도에서는 제일 많은 건수와 공모 선정 사업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특히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과 농촌주택의 새로운 변화에 편승하는 사업인 65세 이상 고령친화적 임대주택조성사업에 선정돼 14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

단되며, 전국 단위로 180여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백수한성, 월산마을, 흥농 향일, 산덕마을, 대마 남산, 묘량 영촌, 법성 산하치마을 주민들이 길게는 3년 동안 마을주민들이 대동단결해 공모사업을 사전 준비하는 등 주민주도형 상향식 사업을 계획해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경관이 개선돼 귀농귀촌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남다른 열정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장흥, 달걀 집란 자동화 도입 노동력 50%·파란을 74% ↓

장흥군(군수 정중순)은 산란계 동물복지인증농장에 '달걀 집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방란 감소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산란계 동물복지 모델 개발 생력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시범농장인 선화농장(대표 문선희)은 2013년 산란계 동물복지 인증을 취득해 현재 2만5천수의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동안 매일 3명의 성인이 4천600㎡의 축사에 들어가 달걀을 수거했다.

선화농장은 본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자동 집란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터는 닭들이 집란 장치에 알을 낳고, 그 알들은 자동 집란 벨트를 타고 옮겨져 수거만 하면 되므로 크게 일손을 줄이게 됐다.

본 사업을 추진한 군 관계자는 "자동 집란 시스템 설치로 달걀을 수거하는 노동력의 50% 절감과 파란을 73% 감소로 연간 약 3만5천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ig@

장성 거버넌스행정으로 결실 거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서 7개 사업 선정·국비 50억 확보

'거버넌스 1등 도시'를 지향하는 장성군이 민관 협업으로 거액의 국비사업을 다수 유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성군은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사업 형태에 따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시군역량사업 등 4

개 사업 유형으로 분류된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장성군의 경우 △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남면 28억원) △마을만들기사업(진원면 고산마을 3억5천만원·덕주마을 3억3천만원·남면 녹진마을 3억5천만원) △시군역량(1억2천만원) △취약지역 생

활여건 개선사업(서삼면 장산2리 9억8천만원) △빈집정비사업(7천만원)이 선정돼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장성군은 거버넌스(주민이 직접 참여 방식으로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체계나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대등한 관계 아래 완벽하게 협력하는 체계) 행정을 표방하며 주민들을 군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난해 7~11월 실시한 '열린혁신 평가' 추진 실적 평가에서 거버넌스 행정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혁신 추진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거버넌스 행정은 큰 결실로 이어졌다.

/장성=정윤섭 기자 jis@



화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최근 관내 구인업체와 채용담당자 및 구직여성과 함께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 여성 맞춤 일자리 제공 총력

화순군(군수 구충근)에서 운영하는 화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최근 관내 구인업체 3개소 채용담당자와 구직여성 40명과 함께 '전남 여성일자리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나주종합스포츠타운 내에 위치한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화순, 나주,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등 6개 시군의 구인희망업체 32여개소의 채용담당자와 구직여성 8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거리를 찾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동시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수 인재를 찾는 자리도 제공됐다.

직업체험관, 창업지원관 등 56개 부스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현장채용관에서는 향후 인력 채용 예정에 있는 기업체 234개의 정보도 제공됐다.

특히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취업성공의 첫 단추인 이력서 컨설팅, 면접 해어·메이킹 등 이미지클리닉,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을 진행해 구직여성에게 실질적인 구직스킬 향상을 지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자신있게 다시 사회의 문을 두드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함평, 장내기생충퇴치사업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군수 이운행)이 최근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개최된 2018 장내 기생충 퇴치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함평군 보건소가 장내 기

생충 퇴치사업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해 2017년 5%였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2.8%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검사결과 발견된 77명의 기생충 감염자에게 무상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생충 퇴치에

적극 나선 것이 이번 평가에서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내 기생충 퇴치를 위해 감염확률 높은 지역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규진 기자 jin2001@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출발전
행선지 파악

운행전~~

경제적인 주행코스 선택하기

GREEN ENERGY